신자유주의 논리에 은폐된 패권전략 비판

《미국 자본주의 해부》《디지털 자본주의》《반세계화의 논리》

오승구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미국 자본주의 해부》
김진방 외 지음
풀빛/A5신/384면/15,000원

《디지털 자본주의》
댄 쉴러 지음 | 추광영 옮김
나무와숲/A5신/352면/10,000원

《반세계화의 논리》
윌리엄 K. 탭 지음 | 이강국 옮김
월간말/A5신/304면/9600원

이 세권의 책은 모두 미국의 세계경제 지배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미국식 자본주의의 운영원리와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지배해나가는 초국적 기업들을 짚어보며, 현 시기를 금융제국주의라 진단한다. 심화하는 부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세계화의 역사적 맥락을 살피고, 미국 자본주의의 본질을 파헤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 할 바를 찾는 첩경이 될 것이다.

밀레니엄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계는 네트워크를 통해 고도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디지털화로 시공을 초월해 자본과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가 진전되고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세계화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끝없이 발전해 산업생산성이 향상돼 세계경제는 한단계 더 성숙할 것이라는 생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의 움직임 활발해

이같이 모든 국가들이 국제화, 세계화를 주창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세계화에 대한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세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세계화를 통해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폐해도 적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를 거치고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결론짓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 중남미의 금융위기 등 신흥국가들의 위기가 끝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선진국가들간에도 제3의 길을 모색하는 등 자본주의 체제, 아니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주도의 IMF, WTO 등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애틀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반세계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자신들의 시스템을 세계 곳곳으로 전파해 미국식 체제를 공고히 하는 형태로 세계화를 추진해왔다. 미국은 세계경제 질서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어온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에 많은 무게를 둬왔다.

그러나 지난 9월 11일 미국 내 테러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국제질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힘의 외교, 타문화에 대한 경시 내지는 압박, 미국 주도의 세계화에 대한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테러사태가 야기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가장 먼저 《미국 자본주의 해부》를 읽고 《디지털 자본주의》와 《반세계화의 논리》를 차례대로 읽으면 세계화 과정에서의 시스템 구축 및 전파과정, 운영 행태,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경제의 호황은 금융자본주의의 산물

《미국 자본주의 해부》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운영원리 및 제도와 구체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제1부 '세계화와 미국자본주의'에서는 1990년대 미국경제의 호황이 고주가, 달러 강세, 저실업률의 선순환 구조에 기인하고 이는 곧 금융자본주의의 소산임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의 핵심이 시장가치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면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시장우위를 점하는 데 필요한 탈규제 요구와 함께 새로운 규제를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부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간의 경쟁과 함께 근로자의 처지와 견해를 배제한 노사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대형화, 증권화, 겸업화, 디지털화로 표현되는 미국 금융시스템의 국제화 과정과 함께 미국금융자본이 국제금융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원천

을 밝혔다.

마지막 3부는 혁신시스템과 기업전략으로 미국경제가 단순히 시장지향적인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지원과 규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체제임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금융지배와 정치의 연관성 밝혀

《디지털 자본주의》는 미국의 초국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시장을 확대하고 이윤확대를 위해 IT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을 설명하면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의 근간인 미국 자본주의는 정보통신 기술의 확대 발전, 특히 인터넷을 통해 더욱 공고해지고 급속히 확산된다는 것이다. 전세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지배력이 급속히 확대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IT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국은 모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며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연유에서 지은이는 미국의 자본주의를 '디지털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채택해 설명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전세계적인 생산체제 및 통제체제를 구축해 전세계적 운영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들의 데이터 시스템을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고, 자신들의 영역 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정치적인 지원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세계은행, IMF, WTO 등 국제기구들은 미국의 세계지배 의도를 실현시키는 데 아주 적합한 제도와 규범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금융지배는 세계경제는 물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국가적인 기업들과 미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들은 상호 깊은 연관을 맺고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장악하고 있다.

>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미국식 시스템을 위한 미화된 용어에 지나지 않으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확산을 위한 도구임에 불과하다."

따라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미국식 시스템을 위한 미화된 용어에 지나지 않으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설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체제에서 사회경제적 복지 불균형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순을 낳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며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 더욱 성숙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편적이고 공평한 세계화 지향해

《반세계화의 논리》는 좀더 과격하게 미국의 세계화 전략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디지털 자본주의》에서도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독점적 시장 지배라는 병폐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1998년 제네바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반대시위, 시애틀 회의 당시 벌어졌던 대규모 시위 등 세계 곳곳에서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책은 '민중의 세계화를 향하여'라는 서문으로 시작한다. 지은이는 세계화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세계화는 서양식 문화와 사고방식 그리고 경제적 조직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지지했던 오랜 전통의 산물로 윤리, 경제, 역사, 정치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본다. 특히 지은이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힘의 논리라는 관점과 함께 정당한 것으로 평가해온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자 했다.

먼저 세계화에 대한 그 동안의 논쟁을 비판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바를 지적했다. 과거나 현재 모두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권력구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설파했다. 아울러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변화를 지적함과 동시에 미국의 세계화전략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지은이는 현 시기를 금융제국주의라고 진단하고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제기구 특히 WTO, IMF, 세계은행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이 강제하는 긴축정책, 민영화, 평가절하, 고금리 정책 등은 노동자를 억압하고 자본가를, 특히 미국의 금융자본가들을 살찌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금융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시키고 이런 체제가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세계 곳곳에서의 무역분쟁, 지역적으로 과도한 투자, 자본집중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한다. 즉 미국의 오만, 제국주의적 사고를 자유와 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긴축정책을 개도국에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이에 저항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은이는 초국적 자본이 미국정부의 도움을 받아 어떻게 움직이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세계 정치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계화가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으며, 자본주의의 해악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처럼 지은이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진보적이고 보편적인 세계화, 즉 공평한 세계화를 주장하고 있다. ■

오승구 연구원은 서강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괴팅겐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 해외경제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한국경제의 장기불황 가능성》《미국증시호황의 실체와 전망》《멕시코 기업구조조정》 등을 펴냈고 논문으로 〈한국경제의 구조문제〉 등이 있다.